

史記 伍子胥 列傳의 構成

李 章 佑*

- | | |
|---------------|-------------|
| I. 緒 說 | 8. 報 讐 |
| II. 伍子胥列傳의 內容 | 9. 吳楚相爭 |
| 1. 世 系 | 10. 吳越相爭 |
| 2. 伍 奢 | 11. 諫 不 聽 |
| 3. 謀殺二子 | 12. 自 殺 |
| 4. 亡 命 | 13. 死 後 |
| 5. 入 吳 | 14. 附：白公勝事略 |
| 6. 登 用 | 15. 贊 |
| 7. 伐 楚 | III. 結 語 |

I. 緒 說

中國文學에는 伍子胥 이야기를 素材로 삼은 文學作品이 많다. 後漢 趙曄의 「吳越春秋」는 伍子胥 이야기가 그 殆半을 차지하고, 唐 敦煌變文 가운데 「伍子胥變文」, 元曲 가운데 「伍員吹簫」 등도 널리 알려진 作品인데, 아마 이 이야기를 처음으로 具體化시킨 것은 「史記」 伍子胥列傳이 아닌가 한다.

伍子胥(?—485 B.C.)가 生存한 時代는 春秋末頃이니, 漢 武帝 때 사람인 「史記」의 著者 司馬遷(145—86 B.C.)에 이르기까지는 約 400년이 相隔한데, 勿論 그 사이 戰國時에 나온 「左傳」, 「國語」, 「呂氏春秋」, 西漢 初에 나온 「淮南子」 등 現在까지 傳해 오는 史書에도 伍子胥에 관한 記錄이 보이며, 司馬遷이 「史記」를 지을 때 非但 伍子胥 뿐만 아니라 이러한 史書를 資料로 삼았다는 것은 史記註釋家들이나 研究家들이 모두 言及하는 이야기다.

그런데 伍子胥 이야기의 內容을 보면 그는 “吳越同舟”니, “臥薪嘗膽”이니 하는 當時 吳越關係를 象徵하는 故事成語가 後世에도 널리 傳할 程度로 說話性이 豊富한 春秋末期 南方 列國의 複雜한 國際關係의 渦中에서 살았고, 그 위에 伍子胥의 崎嶇한 運命 自體가 갖는 微妙한 說話의 要素, 그 崎嶇한 運命에 對한 同情에 緣由하여, 이미 伍子胥 當時부터 直接 間接으로 그와 關聯된 갖가지 架空의인 說話들이 許多히 訛傳 敷衍되기 始作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 檀國大學校 文理科學 專任講師, 中國文學

이러한 짐작을 前提로 하고, 現存하는 伍子胥說話의 가장 오랜 記錄을 더듬는다면 「左傳」昭公二十年以後의 記錄과 「國語」中 吳語의 記錄 따위가 典籍上 最古의 記錄이 될 것이다.⁽¹⁾

그러나 形式上으로 이 「左傳」이나 「國語」는 編年式敘述인데 반해서, 本攷에서 言及할 「史記」는 紀傳體이다. 「左傳」이나 「國語」같은 編年體 敘述 속에 간간히 섞여 나오던 伍子胥에 關한 記述이 「史記」에 이르러서는 그 自體 하나의 專傳으로 定立되기까지 勿論 伍子胥 個人的 歷史上 重要的 位置와 함께, 앞서 내세운 前提와 같은 說話內容의 量的인 敷衍 擴大와, 司馬遷 自身の 이 主人公에 對한 態度 等等이 作用하였을 것이다. 「史記」가운데 伍子胥에 關한 記述은 本傳 外에도 楚世家(卷40), 吳太伯世家(卷31), 越王句踐世家(卷41) 等에도 꽤 詳細하고 鮮明하게 描寫되어 있는데, 本 伍子胥列傳과 그 內容을 對照하여 보면 重複되는 部分이 殆半이나, 그 가운데는 記述이 서로 어긋나는 點도 많으며, 詳略이 不同한 點도 있다. 이러한 點은 本論에 들어가서 몇 가지 例를 들어 對照 考證해 보고자 하는데, 우선 여기서 想起하고 싶은 點은 伍子胥에 關한 이야기가 年代記的인 編年體 史書나, 위에 든 諸世家들에서와는 달리 「伍子胥列傳」이란 專傳 形式의 紀傳體로 바뀌면서 自然히 거기 隨伴되는 列傳 體裁의 特定한 形式을 지니게 되고, 描寫上 技攷와 潤色을 띄게 되리라는 점이다.

보통 이렇게 史書에서 特定人의 平生 事略을 紀傳하는 글을 가지고 文類論者는 “史傳體”⁽²⁾라 부르고 文學者들은 ‘史傳文學’이란 範疇를 設定하기도 하나,⁽³⁾ 史書의 範圍로 말하더라도 通史類에 屬한 「史記」와 斷代史인 「漢書」以後의 諸 正史類, 그 밖에도 別史類, 傳記類⁽⁴⁾까지 總括하여, 이른바 ‘史傳體’, 或은 ‘史傳文學’의 概念과 體係를 定立하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아직 「史記」하나를 中心으로 ‘史傳文學’을 云謂하고 있는 段階인 것 같다.⁽⁵⁾

許多한 史記 研究 가운데 史傳體의 본보기로 흔히 引用된 것은 項羽本紀와 漢高祖本紀⁽⁶⁾ 孔子世家⁽⁷⁾ 淮陰侯列傳⁽⁸⁾ 等等이다. 筆者가 이 伍子胥列傳을 史傳體의 또 다른 본보기로 選定한 까닭은 앞서 云謂한 바와 같은 伍子胥說話 自體의 文學史的 展開에 關한 興味와 既存 史料와 口傳說話 等を 「史記」에서 어떻게 處理하는가 하는 例를 여기서 찾아 보고 싶기 때문이다.

이를 爲하여 伍子胥列傳 原文을 「左傳」「國語」「楚世家」「吳太伯世家」「越王句踐世家」「吳越春秋」等과 綿密히 對照 比較하는 作業을 展開하고자 하는데, 原文引用과 이 作業을 爲한 竝

(1) 이 「左傳」과 「國語」의 著者와 著成年代에 關해서는 異說이 紛紛하지만 Bernhard Karlgren氏의 推證에 따라(「左傳眞偽考」(日譯本) p.108 참조) B.C.468—B.C.300 사이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推測한다면, 伍子胥死後 대개 1世紀 앞 뒤의 作品으로 보아도 될 듯하다.

(2) 「文體明辨」卷五八 傳一上

(3) 吉川幸次郎, 「史傳의文學」(「文明のかたち」 pp.79—85), 貝塚茂樹 「史傳의文學」(「古代中國의精神」 pp.12—9 146) 참조

(4) 四庫全書總目 史部의 分類名稱.

(5) 今鷹眞 「史傳文學—「史記」について—」(中國文化叢書 5 「文學史」 pp.58—67)의 例를 보라.

(6) 田中謙二 「項羽と劉邦」(「史記」(楚漢篇)附錄), 李漢祚教授의 「讀項羽本紀」(1969年 8月 中國文學會에서 口頭發表)

(7) Burton Watson 「文學としての 孔子世家」(京都大學 中國文學報, 1955.4.)

(8) 貝塚茂樹 上記論文에서 引用

이로서 史記 諸注를 綜合 參照한 冊은 日本 瀧川龜太郎의 「史記會注考證」⁽⁹⁾과 中國 王叔岷教授의 近作 「史記輯證」中 「伍子胥列傳輯證」,⁽¹⁰⁾ 「楚世家輯證」, 「越王句踐世家輯證」⁽¹¹⁾ 등을 아울러 參照하였다. 本傳의 文學的解釋은 Watson教授와 田中謙二教授의 說을 많이 參照하였다.⁽¹²⁾ 本小攷의 範圍를 定하고 資料를 求하는 데는 車柱環博士의 가르침이 많았음을 밝히고자 한다.

II. 伍子胥列傳의 內容

史記研究家들 中에는 史記에 收錄된 여러 篇의 傳記들을 보면 劇의 臺本과 같이 第一幕, 第二幕, 第三幕……으로 自然스럽게 나누어 진다고 말하기도 하며,⁽¹³⁾ 敘述은 動作과 臺詞로 點綴되어 있다고도 말한다.⁽¹⁴⁾ 여기서는 于先 이러한 圖式을 그대로 받아들이는가는 且置하고 吳子胥列傳 本文을 著한 事項 차례대로 數段으로 나누어 살펴 볼까 한다.

1. 世 系

伍子胥列傳은 伍子胥의 간단한 世系의 說明부터 始作된다.

伍子胥란 사람은 楚人이다. 이름은 員. 員의 아버지는 伍奢요 員의 兄은 伍尚이다. 그 先代는 伍舉라고 하는데 直諫으로 楚莊王을 섬겨 드러났다. 그 때문에 그 後世가 楚에서 有名했다.⁽¹⁵⁾

여기서 楚莊王을 섬긴 것으로 有名했다는 伍舉는 史記注解⁽¹⁶⁾들에 따르면 楚莊王을 섬긴 것은 그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 伍參이며 伍舉는 其實 莊王의 後繼者인 康王과 靈王때 楚의 名臣이었다. 楚世家에서도 伍舉를 莊王때의 名臣으로 誤記하고 있는데 이것은 司馬遷이 記錄에 錯誤를 일으킨 것으로 본다.

2. 伍 奢

이어서 本傳은 伍子胥의 아버지 伍奢가 平王의 太子 建의 太傅가 되었으나 少傅인 費無忌가

(9) 以下 「考證」으로 略稱하기도 한다.

(10) 未發表原稿. 1972. 6. 1. 初校 校正本을 얻어 보았음. 近聞 中央研究院 史言所集刊 第四十四本에 收錄됨.

(11)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 第42期 第2分(1970) 所載

(12) Watson의 "Ssu-ma Ch'ien: Grand Historian of China (今夏真 日譯本 「司馬遷」)第4章 「史記」의 體裁, 第5章 司馬遷의 思想. 田中謙二·一海知義共譯 「史記」(春秋戰國篇) 解説及 附錄 「史記における人間描寫」

(13) Watson의 上掲書(日譯版), p. 235

(14) 田中, 上掲書(春秋全圖篇), p. 3

(15) 「考證」七 伍子胥列傳 第七 p. 2. 아래 引用한 本傳의 原文과 考證의 頁數는 모두 「考證」七 伍子胥 列傳의 頁數 表示이다.

(16) p. 18 考證 참조

太子妃로 冊定될 秦女를 맞아다 平王에게 바친 뒤 伍奢와 太子 建을 謀陷하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大概「左傳」昭公 十九年條와 「呂氏春秋」慎行篇에 보이는 記錄을 그대로 採錄한 것이며 無忌가 平王으로 하여금 太子 建을 城父로 쫓게 했다가 뒤미처 죽이려 한 이야기는 이미 楚世家에서도 仔細히 나온 것을 여기서 다시 詳細히 적고 있다. 이렇게 같은 「史記」에서 同一한 內容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대하여 體裁上 重複이 穩當치 못하다는 評도 있지만,⁽¹⁷⁾ 伍子胥의 崎嶇한 運命이 奸臣 費無忌의 姦惡한 謀害에 起因함을 생각하면, 無忌의 心中을 파헤치는 이 一段의 敘述은 伍子胥列傳을 그 自體만으로 하나의 獨立된 傳記로 만드는데는 不可缺의 要素가 된다고 하겠다.

3. 謀殺二子

이로부터 伍子胥의 崎嶇한 運命은 發端되는데 費無忌는 伍奢를 가두게 하고 後患을 겁내어 그 두 아들 尚과 員(子胥)을 아버지의 人質로 불러 들여 三父子를 沒殺 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兄인 伍尚 만은 불려가 죽고 아우인 員은 그 惡辣한 姦計를 看破하고 뒤에 復讐할 覺悟로 虎口를 脫出하려 한다. 이 一段의 記錄도亦是「左傳」昭公 二十年條에도 보이나 「左傳」의 記錄에 비해서 「史記」의 記錄은 훨씬 詳細하고 採入된 對話도 「左傳」에 비해서 「史記」의 記述이 훨씬 더 肯綮할 만하다. 이 一段에 關한 「左傳」과 「史記」兩書의 記錄을 여기 약간 對照해 보고자 한다.

無極이 이르기를; “奢의 아들이 만약 뒤편에 가서 있다면 반드시 楚國을 어지럽힐 것입니다. 만약 그 아비를 풀어 준다고 부른다면, 그들은 착하니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장차 禍가 될 것입니다.” 왕이 그들을 부르며 이르기를; “오너라! 나는 너희 아비를 놓아 줄테니.” 棠君 尚이 그 아우 員에게 이르기를; “너는 뒤편으로 가라. 나는 가서 죽으려다……(下略)⁽¹⁸⁾

똑 같은 內容에 對한 左·史 兩書 表現의 差異는 「左傳」에서는 費無極(「史記」에서는 費無忌로 고쳐져 있음)이 伍奢의 아들들이 뒤편으로 亡命한다면 반드시 楚나라의 禍根이 될 터이니까 불러서 함께 죽일 것을 平王에게 勸하니, 平王이 아들들을 부르자 棠君이었던 尚이 그 아우 員에게 自己는 불려가 보아도 아버지 목숨을 救하지 못하고 함께 죽을 것을 알고 있으나 名分上 안 갈 수 없지만 아우는 뒤편으로 亡命해서 장차 父怨을 갚을 것을 當付하는데 史記에서는 無忌가 平王에게 伍奢의 두 아들을 함께 죽일 것을 勸하자 王이 伍奢에게 두 아들을 불러 온다면 그를 살려 주겠다 하니 奢가 “尚은 사람됨이 어지니 부르면 반드시 올 것이나 員은 사람됨이 사납고 굳세니 큰 일을 저질러 놓입니다. 그 놈은 불려 와서 함께 사로 잡힐 걸 알면 반드시

(17) 清 郭嵩燾撰「史記札記」(臺北 世界書局版) p. 244

(18) 「左傳」(臺灣 藝文印書館影印 十三經注疏本) 卷49, p. 36

오지 않을 듯 합니다”고 對答했으나, 王이 듣지 않고 사람을 시켜 두 아들을 불러 오게 하나 果然 尙은 가려 하나 員이 “楚나라가 우리 兄弟를 부르는 것은 우리 아버지를 살려 주려는 것이 아니라 亡命하는 者가 있으면 後患이 생길까 두려워 아버지를 人質로 삼고 우리 두 아들을 거짓 부르는 것이요. 아들 둘이 간다면 둘 다 함께 죽을 것이니, 아버지의 목숨에 무슨 보탬이 되겠오? 간다면 怨讐를 갚을 길이 없을 뿐이니 딴 나라로 逃亡가 힘을 빌려서 아버지의 怨讐를 갚음만 못할 것이요. 함께 죽는 것은 헛된 일이요” 하니 伍尙은 말하기를 “나도 가더라도 끝내 아버지 목숨을 救하지 못할 것을 안다. 그러나 아버지가 우리를 불러 목숨을 救하려는데 가지 않았다가 뒤에 雪恥도 못한다면 끝내 天下의 웃음거리가 될까 두렵다”고 하고 員에게 이르기를; “가거라. 너는 아버지를 죽인 怨讐를 갚을 수 있으니. 나는 돌아가 죽겠다”고 하였다.⁽¹⁹⁾

「左傳」에서는 伍尙 一人의 말로 된 것을 伍尙·伍員 兄弟의 對話로 바꾸어 伍尙·伍員의 兄弟의 個性의 差異를 훨씬 두드러지게 表現하였을 뿐만 아니라 伍奢가 이미 그 아들들의 性格을 잘 把握한 豫言이 十分 適中한 것을 妙하게 느낄 수 있다.

더구나 위의 「左傳」에서는 費無極이 “奢之子, 若在吳, 必憂楚國. (伍奢의 아들이 吳에 가 있다면 반드시 楚나라를 어지럽힐 것이다.)…” 尙이 “爾適吳, 我將歸死. (너는 吳로 가라. 나는 돌아가 죽으련다.)…”고 伍員이 亡命한다면, 반드시 吳나라 밖에는 갈 곳이 없는 듯 적고 있는데, 이것은 事理上 吳나라 周邊國家가 吳 말고도 許多한데, 왜 何必 吳나라로 갈 것이라고 했는지 잘 納得할 수 없는 일인데, 「史記」에서는 여기서 亡命豫定地로 미리 吳를 이야기에 꺼내지는 않았다. 「左傳」에서는 平王이 사람을 보내 伍尙·伍員 兄弟에게 “來, 吾免而父. (오나라, 너희 아비를 놓아 줄테니)” 한 것을, 「史記」에서는 伍奢에게 이른 “能致汝二子則生. 不能則死(너의 두 아들을 불러 오면 살려 줄 것이로되 그렇지 못하면 죽일 것이다)”는 對句로 바꾸어 表現을 더욱 婉曲하게 하였다.

4. 亡 命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伍子胥가 楚를 떠나 吳에 까지 이르는 亡命次 流浪에 관한 記錄이다. 「史記」本傳에는 子胥가 太子 建이 亡命한 宋으로 亡命했다가, 함께 鄭으로 갔으나 建이 鄭定公과 子產에게 被殺되자 建의 아들 勝을 데리고 吳로 들어 간 것으로 적혀있다. 그런데 「左傳」이나 「楚世家」의 關聯 記錄을 보면,⁽²⁰⁾ 吳子胥는 楚를 떠나 바로 吳로 亡命하였지, 太子 建을 따라 위와 같이 遊浪했다는 記錄은 없다. 「史記」의 十二諸侯年表를 보면;

(19) 本傳 pp. 4—5

(20) 伍尙歸, 奢聞員不來曰: “楚君大夫其肝食乎! 楚人皆殺之. 員如吳. —「左傳」 昭公二十年條(卷49, p. 4a) 伍尙遂歸 伍胥彎弓屬矢, 出見使者曰: “父有罪, 何以召其子?” 將射. 使者還走. 遂出奔吳. 伍奢聞之曰: “胥云, 楚國危哉!” 楚人遂殺伍奢及尙. —楚世家 p. 39

楚平王二年 王爲子取秦女。好。自取之。

楚平王七年 誅伍奢·尙。太子建奔宋。伍胥奔吳。(魯昭公20年—筆者註。以下同)

宋元公十年 楚太子建來奔。見亂。之鄭(魯昭公20年)

鄭定公八年 楚太子建。從宋來奔。(魯昭公20年)

吳僚五年 伍員來奔。(魯昭公20年)

鄭定公十一年 楚建作亂。殺之。(魯昭公23年)

이와 같이 禍가 미치자 同年(魯昭公20年; B.C.521)에 伍子胥는 바로 吳로 亡命한 것이며, 子胥가 太子 建을 따라 宋으로 갔다는 記錄은 없다. 「鄭世家」에는 “(定公)十年에 太子 建이 晉과 더불어 鄭을 襲擊하려 하여, 鄭은 建을 죽였다. 建의 아들 勝이 吳로 逃亡하였다”⁽²¹⁾라는 記錄이 있는데, 위의 年表의 鄭定公十一年條의 같은 記錄과는 一年이란 記錄上的 差異가 있기는 하나, 大概 太子 建이 楚나라를 떠난 뒤 2—3年 후에 建의 아들 勝이 또 吳나라로 도망오게 된 것 같다. 위의 「左傳」, 「楚世家」, 「十二諸侯年表」, 「鄭世家」의 記錄을 土臺로 하면 太子 建이 宋으로간 것과 伍子胥가 바로 吳로 도망친 것과는 전혀 別個의 事實로 보는 것이 妥當하며, 이에 對해서는 清 郭嵩燾(1818—1891)의 「史記札記」에서도 매우 仔細히 論證하고 있다.⁽²²⁾ 田中謙二教授는 이에 對하여 伍子胥가 먼저 吳로 脫出했다가 다시 太子 建을 찾아 宋으로 갔을지도 모른다는 推測⁽²³⁾을 내 놓기도 했으나 이 亦是 推測할 수는 있는 일이나, 믿을만한 根據는 하나도 없다. 더구나 이 一段에는 다음과 같은 故事가 附述되어 있다.

昭關에 이르니 昭關지기가 그를 잡으려 하였다. 伍胥는 드디어 勝과 더불어 홀몸으로 달렸는데, 거의 빠져 나갈 수 없었다. 잡으려 오는 者는 뒤 쫓아 오고. 江에 이르니 江위에 한 漁父가 배를 타고 있었다. 伍胥의 急함을 보고, 이에 伍胥를 건네 주었다. 伍胥가 江을 건너 와서 그의 칼을 풀어 주며 말하기를; “이 칼은 百金이나 되는 것인데, 그대에게 드리노라.” 하니, 漁父 이르기; “楚나라 法에 伍胥를 잡은 者에게는 罰金 五萬石을 주고 執圭 벼슬을 준다 하였거늘, 어찌 겨우 百金자리 칼 뿐이랴?” 하고 받지 않았다. 伍胥는 吳에 못미쳐 病들어서, 中途에 머물러 乞食하였다.⁽²⁴⁾

이 에피소드는 「呂氏春秋」 異寶篇에서 採入한 것이다.⁽²⁵⁾ 이 興味로운 이야기를 여기 插入해 둔 것은 아마도 本 伍子胥傳에서 伍子胥가 吳로 들어간 것은 매우 重要的 段落이 되는데, 子胥

(21) p. 33

(22) p. 245

(23) 「史記」(春秋戰國篇) p. 205

(24) p. 6

(25) 「呂氏春秋」(中華書局 四部備要本) 卷10. p. 8a—b. 「吳越春秋」(卷4 p. 4a)와 여기도 公子 勝과 함께 같이 갔다는 말은 없다.

가 江을 건너다는 것은 곧 장차 復讐를 할 수 있다는 可能性의 실마리가 되고, 흔히 옛날 英雄 說話에서 볼 수 있듯이 그 一生에서 이러한 辛苦를 겪는 아슬아슬한 瞬間의 描寫는 그 主人公에 對한 認識이나 全體 이야기를 더욱 印象 깊게 浮刻시킬 수 있는 要素로서 作用하기 때문일 것이다. ⁽²⁶⁾

요컨대 子胥가 吳에 亡命하는 過程을 叙述한 이 대목은 위에 살펴 본 바와 같이 여러 史料들을 심지어 史記內의 年表에 들어 있는 記錄과도 相異하게 子胥가 直接 吳로 들어 오기 以前에 太子 建과 함께 2,3年間 宋, 鄭, 晉으로 轉轉하다가 마침내 太子 建과 死別하고, 그 아들 勝을 데리고 千辛萬苦로 吳에 亡命 定住하게 되는 이야기로 바꾸어 놓았다.

5. 入 吳

그 다음은 子胥가 吳에 到着한 뒤, 吳王 僚에게 公子 光을 시켜 楚를 征伐할 것을 勸했으나, 公子 光은 內心 吳王 僚를 쫓아 내고 스스로 王位 오르고 싶은 野心이 있었으므로 征楚를 反對하고 있음을 子胥가 看破하고 力士 專諸를 公子 光에게 推薦하고 當分間 公子 勝과 耕野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記錄만 보고는 잘 首肯되지 않는 點은 異國에서 갓 온 亡命家인 伍子胥가 어떻게 刺客인 專諸를 얻게 되었으며, 또 伍子胥가 建議한 征楚論을 一言之下에 默殺시켜 버린 公子 光이 子胥가 推薦한 俠客을 믿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이 一段의 叙述 亦是 左傳⁽²⁷⁾에서 採錄한 것인데 左傳에 亦是 이에 對한 說明까지는 없다. 다만 「呂氏春秋」 首時篇에 子胥가 公子 光의 注目을 끌게 된 經緯가 보이는데, ⁽²⁸⁾이 事實에 對하여 「史記」의 著者는 그 저 看過해 버렸거나 或은 「呂氏春秋」의 記錄을 取할만한 것이 못 되는 것으로 보았는지 모르겠다. ⁽²⁹⁾

6. 登 用

그 다음 楚平王이 죽은 틈을 타서 吳王 僚가 二公子를 보내 楚를 襲擊하는데 골몰한 틈을 타서 公子 光(뒤부터 閭廬로 稱함)이 專諸로 하여금 王을 擊殺케 하고 篡位하며, 子胥도 登用된다. 이 伐楚와 篡位에 關한 記錄은 「左傳」(昭公27年條)과, 吳太伯世家, 刺客列傳에 다 昭詳히 나오는데, 여기서 다시 詳記하지 않은 것은 政變時 子胥는 在野하여 直接 關與하지 않은 理由도 있겠고, 또 重述을 避하기도 한 듯하다.

(26) 뒤에 나온 伍子胥變文을 보아도 이 部分의 描寫가 特히 두드러지고, 더욱 甚한 潤色이 加해진다.

(27) 昭公 廿年條 (49卷 p. 4a)

(28) 卷14 p. 8a—b

(29) 子胥가 專諸를 얻게된 經緯는 後漢 때 된 「吳越春秋」(四部備要本 卷3 p. 5a)에 說明이 처음 나온다. 專諸가 子胥를 알게된 機緣은 專諸의 一生에서는 매우 重要的인 일이 되겠는데, 여기에 對하여 「史記」 刺客列傳 중 專諸傳에 까지 普及이 없음은 아무래도 疎漏함을 면치 못한 印象이다.

7. 伐 楚

그 다음 闔廬 在位 二年부터 子胥가 闔廬를 도와 楚를 征伐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여기서 楚 征伐에 앞서, 楚 平王의 喪을 틈타 楚征伐에 나섰다가 吳王 僚가 闔廬에게 被殺되었다는 消息을 듣고, 楚에 投降해서 舒에 封함을 받았다는 吳의 一公子를 사로 잡은 것으로 되어 있다.⁽³⁰⁾ 이 記錄은 「吳太伯世家」에도 同一한데,⁽³¹⁾ 「史記索隱」과 「史記會注考證」의 위 「吳太伯世家」 記錄에 대한 昭公三十年條 春秋經文과 「左傳」 同年條의 아래와 같은 말;

吳滅徐. 徐子奔楚.(經)

吳子使徐人執掩餘, 使鍾吾人執燭庸. 二公子奔楚. 楚子大封而定其徒(左傳 卷53).

을 보면 吳의 公子(掩餘)가 舒에 封함을 받은 일이 없는데 다만 위 말 가운데 ‘徐’를 ‘舒’로 잘못 적고 또 事實 自體도 틀리게 記錄했을 可能性을 指摘하였다. 이렇게 보면 “闔廬三年에 伍子胥 등이 楚를 치는데 舒를 擊破하고 吳의 叛將 둘을 사로 잡았다.(闔廬立三年, 乃與師, 與伍子胥·伯嚭伐楚, 拔舒, 遂禽故吳反二將軍)”는 말을 根據가 없는 것이 되겠는데, 筆者의 推測으로 는 將且 크게 이길 戰役의 前奏로 이러한 작은 插話を 만들어 넣은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闔廬 四年 以下 伐楚 戰役에 關한 記錄은 大概 吳太伯世家와 大同小異하다.

8. 報 讐

드디어 闔廬 九年에 子胥가 吳王 闔廬를 도와 楚의 首都 郢까지 쳐들어 가자 楚 昭王은 逃亡하고, 子胥가 죽은 平王의 무덤에 侮辱을 加함으로써 報讐를 한 記錄이 나온다. 本文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吳兵이 郢에 들어 가자 伍子胥는 昭王을 잡으려 했으나 놓쳐 버린 뒤였다. 이에 平王의 무덤을 파내어 그 屍體를 꺼내서 삼백 번을 친 뒤 그만 두었다.⁽³²⁾

이와 같은 記錄은 「左傳」에는 없으며, 「穀梁傳」에는 “平王의 무덤을 매질했다(槌平王之墓).⁽³³⁾”로, 「呂氏春秋」 首時篇에는 “伍子胥가 親히 荊王의 무덤에 삼백 번이나 매질했다(鞭荊王之墳三

(30) pp.8—9. 前王僚所遣二公子將兵伐楚者, 道絕不得歸. 後聞闔廬弑王僚自立, 遂以其兵降楚. 楚封之於舒. 闔廬立三年, 乃與師, 與伍子胥·伯嚭伐楚, 拔舒, 遂禽故吳反二將軍, 因欲至郢.

(31) pp.27—8

(32) p.11. 吳兵入郢, 子胥求昭王, 既不得. 乃掘平王墓, 出其尸, 鞭之三百, 然後已.

(33) 卷 19, p.9b

百)”⁽³⁴⁾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와 같이 “平王의 무덤을 파서 그 屍體를 꺼내 삼백 번이나 때렸다.”고 한 것은 아마도 憎惡와 復讐心を 더욱 強烈하게 表示하려는 底意에서 이렇게 더욱 酷毒한 表現으로 바꾸어 놓았을 것이다. 이러한 慘酷한 復讐의 記錄을 그 說話 自體의 粗雜性으로 보아 記錄으로 傳했다기 보다는 傳說이 口傳되고 內容이 擴大된 것을 捕捉, 記錄한 듯 한 데 이점은 「吳越春秋」⁽³⁵⁾같은 野史集에 더욱 敷衍 擴大된 것을 보아도 짐작할 수 있다.

이 때 楚의 國運이 危殆롭게 되고 楚昭王이 雲夢, 郢, 隨 等地로 出奔轉轉한 자못 아슬아슬한 故事 들은 「左傳」定公 四年條⁽³⁶⁾와 「楚世家」⁽³⁷⁾에 펴 詳細하게 記錄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直接的인 關聯이 없음인지 그리 詳細히 적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가운데 자못 興味로운 對話 두 가지를 빠뜨리지는 않았다. 楚昭王이 郢으로 쫓겨 갔을 때, 郢公의 아우 懷가 “平王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으니 내가 그 아들을 죽이는 것이 또한 옳지 않겠는가? (平王殺我父, 我殺其子, 不亦可乎)”하며 昭王을 죽이려 했다는 펴 直切하고도 印象的인 發言과, 伍子胥가 죽은 平王墓에서 怨恨에 맺힌 暴行을 犯했다는 말을 듣고 伍子胥를 꾸짖은 말과 이에 對한 子胥의 對答;—

申包胥가 山中에 逃亡하여 사람을 시켜 子胥에게 이르기를; “그대의 報讐는 이다지도 酷甚한가! 내 들으니 사람이 많으면 하늘도 이기고 하늘이 定하면 또한 남을 破할 수 있다 하였네. 지금 그대는 옛날 平王의 臣下로서 親히 北面하고 섬겼는데, 지금 死人을 辱하는 데까지 이르니 이 어찌 天罰이 없을소냐?”하니 子胥 가로되; “나를 爲해서 申包胥에게 일러 주게. 나는 해는 지는데 갈 길은 먼 사람이야. 나는 그 때문에 겨꾸로 行하고 그릇 베푸는 바일세”.⁽³⁸⁾

이 말은 「史記」本傳 外에는 出典이 없는 것을 보아서 아마 史記 著者の 創作이 아닌가 싶다. 「左傳」을 보면 앞서 伍子胥가 楚를 脫出할 때 申包胥에게 “나는 반드시 楚나라에 報復을 하겠다(我必復楚國)”고 한 말에 對하여 申包胥가 “힘 써 보게나! 그대는 報復할 수 있지만 나는 반드시 楚나라를 復興시키겠네(勉之! 子能復之, 我必能興之)”⁽⁴⁰⁾라고 한 말이 있는데, 本傳에서는 이 말은 빠지고 代身 위에 말이 여기 插入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史記」는 典據에 依存함이 없이 相當한 部分을 著者 自身이 創造해 낸 것으로 봄이 妥當할 듯하다.

(34) 卷 14 p. 86. 「淮南子」泰族訓(卷20 pp. 136—14a) 「賈子新書」耳痺篇(卷7, p. 36)에는 각각 ‘鞭荆王之墓’, ‘撻平王之墓로 되어 있다.

(35) 卷54 pp. 22a—26b. “伍胥以不得昭王, 乃掘平王之墓, 出其屍, 鞭之三百. 左足踐腹, 右手擗其目, 謂之曰; “誰使汝用讒腹之口, 殺我父兄? 豈不冤哉?”

(36) p. 42.

(37) p. 10. 「左傳」에도 “平王殺吾父, 我殺其子, 不亦可乎?”라는 말이 있고, 이에 對하여 郢公 辛이 懷柔하는 말이 길게 나옴. (卷56. pp. 25b—26a)

(38) p. 12.

(39) 卷52 p. 27a.

(40) p. 14.

9. 吳楚相爭

그 다음이 申包胥가 秦나라에서 援兵을 얻어와 楚를 救한 뒤 吳·楚間에는 몇 년간 相爭이 繼續되는데, 此段 以後부터 伍子胥의 生涯로 보나 本傳 叙述로 보나 一大段落을 짓게 된다. 此段에는 다만 吳楚相爭에 關한 記錄 뿐이고, 伍子胥 個人傳記와는 큰 關聯이 없다. 다만 本傳과는 別關聯이 없는 “孔子가 魯나라의 宰相이 되다. (其後四年孔子相魯)”⁽⁴¹⁾란 記事가 나오는데 이 말은 吳太伯世家에도 “[閼廬]十五年, 孔子相魯.” 楚世家에서도 “[昭王]十六年, 孔子相魯”라는 말을 넣은 것은 天下가 다 아는 重要한 일을 적어 年代記的 役割을 하게 한 것인지 모르겠다.

10. 吳越相爭

楚와의 戰爭이 一段落되고, 다시 敵對國으로 登場한 것이 越國인데, 吳王 閼廬는 越王 句踐의 襲撃을 받아 죽는다. 이 一段은 大概 吳太伯世家를 抄寫해 두었는데, 여기서 閼廬의 臨終時에 다음과 같은 插話가 적혀 있다.

閼廬가 傷處가 甚해 죽을 때, 太子에게 이르기를; “너는 句踐이 너의 아버지를 죽인 것을 잊겠는가?” 하니, 夫差가 對答하기를; “敢히 잊을 수 없습니다.”

이 記錄은 「左傳」에는

夫差가 사람을 마당에 세워 놓게 하고, 出入할 때 마다 반드시 자기에게 “夫差야! 너는 越王이 너의 아버지를 죽인 것을 잊었느냐?”고 웨치게 하고 곧 對答하기를 “예, 차마 잊을 수 없습니다.”⁽⁴²⁾

라고 적혀 있다. 이 두 글을 比較해 보면 두 文章의 主旨는 다 越의 怨讐를 끝내 잊을 수 없고 꼭 怨恨을 갚고야 말겠다는 決意를 나타낸 것인데, 아마 「左傳」에서 夫差가 마당에 사람을 세워 놓고 출입할 때 마다 임금인 自己에게 웨치게 했다는 것 보다는 오히려 父王의 臨終時에 復讐를 盟誓했다는 것이 더욱 悲壯하고 生動하는 듯한 表現이기에 이렇게 「史記」에서 「左傳」의 表現을 改寫한 듯 하다.

여기에 이 吳越間의 復讐故事와 關聯하여 한가지 添附하고 싶은 것은 「臥薪嘗膽」이란 故事이

(41) 趙翼曰: “列傳與孔子毫無相涉者, 亦書孔子相魯, 以其保天下輕重也.” — 重引於本傳「考證」p. 14

(42) 閼廬病創將死. 謂太子夫差曰: “爾忘句踐殺爾父乎?” 夫差對曰: “不敢忘.” — p. 14. 이 表現은 吳太伯世家에도 大同小異하다.

다. 「越世家」에는 ;

吳가 이미 越을 容恕해 주자 越王 句踐은 本國으로 돌아 갔다. 이에 몸을 수고롭게 하고
에타우며 생각하여, 쓸개를 자리에 놓고, 앉거나 누울 때면 곧 쓸개를 쳐다 보고, 밥을 먹
을 때도 또한 쓸개 맛을 보면서 이르기를 ; “너는 會稽의 恥辱을 잊었느냐?”고 하였다. (43)

이 이야기도 「史記」에서 처음 나타난 것인데 多分히 앞에 引用한 吳王 夫差의 復讐盟誓를 意
識해 가면서 巧妙히 相對를 이루기 爲하여 史記의 著者가 創出해 낸 것이 아닌가 한다. 이 句
踐의 “嘗膽故事”에 작합한 한 것이 夫差의 有名한 “臥薪”故事인데 이 이야기는 「史記」에는 記
錄이 없는 것인데, 바로 이 “嘗膽”故事와 작을 이루기 爲하여 더욱 後世에 造出된 것이라 본
다. (44)

이러한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古來說話의 變遷 改造되는 過程을 짐작할 수 있겠다.

11. 子胥諫, 吳王不聽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越王 句踐이 國力을 培養할 時間을 얻기 爲해서 當分間 吳에 屈
從을 甘受하면서 和約을 要請하며 吳王 夫差는 그 底意를 짐작치 못하고, 이에 快히 應諾하고
자 하는데 伍子胥가 이에 反對하여 忠言으로 諫言하는 이야기다. 이 諫言은 「左傳」과 「國語」에
서 哀公元年과 十一年 兩次에 걸쳐서 行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三次에 걸쳐 行한 것
으로 되어있다. 이에 關하여는 田中謙二教授의 「史記における人間描寫」에서 매우 詳細히 論述
하고 있는데 (45) 說明을 爲하여 以下 氏의 論文을 譯引해 본다.

「左傳」哀公元年の 記錄을 보면 ;

吳王 夫差가 越을 夫椒에서 敗北시켜, 槁李의 敗北에 報復하고 드디어 越로 쳐들어 갔다.

越子는 武裝軍 5천명으로 會稽山을 確保하고서, 大夫 種으로 하여금 吳太宰 嚭를 통해서 講
和를 締結하려 하였다. 吳子가 許諾하려 하자 伍員이 아뢰기를 ; “안 됩니다. 臣이 들으니
恩德을 樹立하는 데는 더해 줄수록 더욱 좋고 病을 除去하는 데는 根絶할수록 더욱 좋다고
합니다. 옛날 過나라의 澆가 斟灌을 죽이고 斟鄩을 征伐하고 夏后 相을 滅할 때, 相의 后
緡이 巴야흐로 妊娠하였는데 구멍으로 逃亡쳐 나가 仍으로 돌아 가 여기서 少康을 낳아 仍
의 牧正이 되었으나 澆의 能力을 두려워하였 警戒하였읍니다. 澆가 椒을 시켜서 少康을 찾

(43) 「左傳」定公14年(卷56 p. 17a—b)

(44) 越世家 p. 7

(45) 「十八史略」; “夫差志復讐, 朝夕臥薪上”

(46) 前引「史記」(春秋戰國篇)附錄 pp. 16—20

자, 虞로 逃亡하여 庖正이 되어 그 害를 넘겼습니다. 虞의 임금 思가 이에 二姚를 아내로 삼아주고 綸을 食邑으로 주니, 밭이 四方 十里나 되고 部下가 5백명이나 되었으니 德政을 펴고, 復讐計劃을 세워서 夏의 百姓들을 다시 모으고, 그 官職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女艾로 하여금 澆를 偵察케 하고 季杼로 하여금 豷을 피어 마침내 過와 戈를 滅하고 禹의 王業을 回復하여 夏에 祭祀를 드려 하늘에 配享케 하고, 옛 것[天下]를 잃지 않았습니다.

지금 吳나라는 過만 못하나 越나라는 少康보다 큰데, 設或 將且 吳나라를 豐大케 하려 해도 또한 어렵지 않겠습니까? 句踐은 能히 部下에게 親密하고, 恩惠를 베푸는데 힘씁니다. 배풀어서 사람을 잃지 않고, 親해서 手苦를 헛되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과는 領域이 같아 代代로 怨讐가 되었는데, 이 때에 억눌려 取하지 않고 將且 또 남겨 두면 하늘 뜻을 拒逆하고 怨讐를 키워 주는 것이니, 뒤에 비록 後悔한다 하더라도 먹을 수 없을 것입니다. 姬氏의 吳나라가 衰亡함을 날로 세어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蠻夷 가운데 怨讐를 키워 주니, 이때문에 霸者가 되려 해도 반드시 되지 않을 것입니다”하였으나 듣지 않았다.⁽⁴⁷⁾

伍員의 勸告는 다시 「左傳」哀公 11年條에는 다음과 같다.

吳가 齊를 伐하려 하매 越子가 그 무리를 이끌고 朝貢 왔는데 王과 列士가 다 뇌물을 받았다. 吳人은 다 기뻐 했으나, 오직 子胥 만은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이것이 미끼로 吳를 낚는 것이로구나.”하고 諫하기를; “越은 우리 들에게 있어 心腹의 病입니다. 領域이 같아 우리 나라에 野欲이 있는 것입니다. 저놈 들이 굶히는 것은 野欲을 숨기기 爲함이니, 이때 미리 方法을 圖謀함만 못합니다. 齊를 얻는다 해도 자갈밭을 얻는 것과 같아서 所用 없을 것입니다. 越이 못이 되지 않는다면 吳는 亡할 것입니다! 醫師로 하여금 病을 除去하려 하면서 반드시 病의 씨앗은 조금 남겨 두어야 한다”고 말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盤庚의 誥에 이르되, ‘萬若 미치고, 넘나들며 恭順치 않거던 코를 베고 滅亡시켜, 남은 씨가 없게 하고 이 邑에서 種子를 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商을 興케 한 理由입니다. 이제 임금님께서 이것을 버리고, 큰 것을 구하려 하나, 또한 어렵지 않겠습니까?”하였으나 듣지 않았다.⁽⁴⁸⁾

그런데 「左傳」에 보이는 위의 두 차례에 該當하는 伍員의 勸告는 實은 「國語」에도 記錄되어 있다. 먼저 哀公의 元年條에 相當하는 記事는 吳語(19)와 越語(20)에 보이나, 어느 쪽도 記年은 없다. 그런데 伍員의 諫言 內容에 關해서는 越이 順從하는 것이 本心은 아니라는 것과 人心

(47) 「左傳」卷57 pp. 2b—4b

(48) 「左傳」卷58 p. 25a—b

把握에 專心할 것을 말한 것인데, 「左傳」記載와 共通되는 表現은 전혀 없다.⁽⁴⁹⁾ 다음의 哀公 11年條에 相當한 記事는 吳語 (19)에만 보이지만 亦是 記年은 없다.

吳王 夫差가 이미 越에 講和를 許諾하고, 이에 軍隊 들을 警戒시켜 將且 齊를 치려 하였다. 申胥(子胥)가 나아가 諫하기를; “옛날 하늘이 우리 越을 吳나라에게 주었으나, 임금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대저 天命은 反覆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越王 句踐은 佞이 나서 그 죄를 고쳐 그 나쁜 法令을 버리고, 그 稅金을 덜어 주며, 百姓 들이 좋아하는 바를 베풀고 百姓들이 싫어하는 것을 버리며, 몸소 節約하면서 百姓 들을 너그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百姓 들은 數가 늘어 軍人도 늘었습니다. 越나라는 우리 吳나라에 있어서는 사람에게 있어 腹心の 疾과 같습니다. …… 지금 임금께서 天意를 어기고 齊를 치려 하나 대개 吳나라 百姓 들의 마음은 떨어져 나갈 것이니, 몸 속에 故障이 생긴 것입니다. 比喩컨대 여러 짐승들이 배 짓고 있으나 한 마리가 화살에 맞으면, 차츰 百 무리가 다 逃亡할 것이니, 임금님께서 收拾할 方法이 없을 것입니다. 越나라 사람 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쳐들어 올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그때 비록 後悔하더라도 그 어찌 미치겠습니까?” 임금은 듣지 않았다.⁽⁵⁰⁾

이 記事에 곧 連續하여 “十二年, 드디어 齊를 치다.(十二年, 遂伐齊)”라는 말이 있으니, 上記의 事件도 吳王 夫差十二年(哀公 11年)이나,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도 그리 멀지 않는 時期로 봄이 좋을 것이다. 어찌 되었던 伍員의 忠諫은 前後 2回——大略 越王 句踐이 歸順한 哀公 元年과 吳가 齊攻擊을 計劃한 哀公 11년에 걸친다는 것은 諫言內容에 差違가 있지만, 「左傳」과 「國語」에 共通되는 歷史事實이다.⁽⁵¹⁾

그런데 이러한 事件은 「史記」에 이르러 奇妙한 改書가 行해진다.

夫差가 이미 即位하여 王이 되고, 伯嚭로 太宰로 삼아 戰射를 練習시켰다. 2년 뒤에 越을 쳐서, 越을 夫湫에서 敗北시켰다. 越王 句踐은 이에 餘兵 五千人을 會稽 위에 머물게 하고, 大夫 種으로 하여금 厚幣를 吳太宰 嚭에게 보내 和議를 請하고 나라를 맡기고 臣妾이 될 것을 求했다. 吳王이 將且 許諾하려고 하였다.

伍子胥가 諫하기를; “越王은 사람됨이 辛苦를 견딜 수 있습니다. 지금 임금님께서 滅치 않으시면 뒷날 반드시 後悔하실 것입니다”하나 吳王이 듣지 않았다. 太宰 嚭의 計策을 써

(49) 田中, 上揭論文, p. 18.에서 引用

(50) 「國語」(中華書局 四部備要本) 卷19 pp. 3a—4a

(51) 田中, 上揭論文, p. 19.에서 引用

(52) pp. 14—7

서 越과 講和하였다.

그 뒤 5년, 吳王은 齊景公이 죽었는데 大臣 들이 寵愛를 다투나, 새 임금은 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軍隊를 일으켜 北으로 齊를 伐하려 하였다.

伍子胥가 諫하기를; “句踐은 먹는데도 두 가지 반찬을 놓지 않고, 죽음에는 吊喪하고, 病에는 問病하는 것은 정말 그 들을 쓰고 싶어 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죽지 않는다면, 반드시 吳나라의 걱정거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 吳나라가 越을 갖고 있는 것은 마치 사람이 腹心에 病을 갖고 있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 먼저 越을 圖謀하시지 않으시고, 이에 齊에 힘쓰시니 또한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吳王이 듣지 않고, 齊를 伐해서 齊나라 軍人 들을 艾陵에서 크게 敗北시켰다. 드디어 鄰나라와 魯나라의 임금 들을 威脅하고 돌아 왔다. 더욱 子胥의 意見은 排斥 받았다.

그 뒤 4年, 吳王이 將且 齊를 北伐코자 하였다. 越王 句踐은 子貢의 意見대로 그 무리를 이끌고 吳를 도우려 했다. 그래서 값진 寶物을 太宰 嚭에게 바쳤다. 太宰 嚭은 이미 여러 번 越의 賂物을 받아서 그 越을 아끼고 믿음이 매우 두터웠다. 낮과 밤으로 吳王에게 말했다. 吳王은 嚭의 計策을 信用하였다. 伍子胥가 諫하기를; “대저 越은 腹心の 病입니다. 지금 그 뜬 말과 거짓 속임을 믿고서, 齊나라를 탐내십시오만, 齊를 破하는 것을 比喻컨대 자갈밭 같은 것이니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또 盤庚의 誥에 이르기를; “萬若 미치고 날뛰며 恭遜치 못하면 코를 베고, 滅亡시켜 後孫이 없게 하고, 이 邑에서는 씨를 퍼뜨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고 한 것은 商이 興起한 所以입니다. 願컨대 王은 齊를 버리고 越을 먼저 取하소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뒤에 將且 後悔한다 해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고 하였으나 吳王은 듣지 않고 子胥를 齊에 使臣으로 보냈다.⁽⁵³⁾

司馬遷의 記載에는 哀公 元年과 11年 中間에, 伍員의 忠諫事件이 쓸 데 없이 插入되어 있다. 그렇지만 새로이 더해진 記事에 보이는 齊陵에 있었던 齊의 敗北는 「春秋」哀公十一年 五月條에 다음과 같이 明記되어 있다.

甲戌, 齊 國書가 軍을 이끌고 吳와 艾陵에서 싸우다. 齊軍은 敗北하고, 齊國書는 잡하다.⁽⁵⁴⁾

다시 「國語」에 있어서도 前記와 같이 이것을 吳王 夫差 十二年(哀公 十一年)에 넣었다.⁽⁵⁴⁾ 이것은 어쩐지 司馬遷이 事實을 歪曲, 일부터 伍員의 忠諫事件을 다시 한 번 附加시켰다고 斷定해도 좋을 듯하다. 아마도 그는 伍員의 勸告가 두 번까지 棄却된 事實에 着眼하여 伍員이 吳王

(53) 「左傳」卷58 p.20a—b

(54) 十二年, 遂伐齊. 齊人與戰於艾陵. 齊師敗績, 吳人有功. —「國語」卷19 p.4

으로부터 疎外되어 不得已 自殺을 하게 되는 悲運의 最終段階를 더욱 強調하기 爲하여, 다시 한번 勸告와 棄却 事件을 創造한 것 같다. 確實히 이것은 史實의 創造다. 그러나 暗愚한 君主에게 끝까지 忠誠을 바치다가 自身은 漸漸 不幸에 빠지는 宿命的인 人間의 姿勢를 浮刻시키기 위해서 이런 創造는 相當히 效果를 나타낸다. 三段의 記事와 나란히 “伍子胥諫曰……吳王不聽”이라고 하는 全혀 同一한 表現이 反覆되는 일은 一層 이 效果를 높인다. 여기에 伍員의 勸告의 內容은 回를 더할 수록 말의 數를 增加(15—51—75)시켜, 또한 複雜을 더해 가는 것도 巧妙히 計算된 司馬遷 自身の 意圖인 듯하다. 이러한 證據는, 三段記事는 吳太伯世家에도 보이는데, 이 第一段에 있는 伍員의 忠諫에는 「左傳」哀公元年の 여기 引用된 「過氏의 先例」가 길게 이야기되고 있으나, 도리어 第二段·第三段에는 말의 數가 漸減된다. 다시 伍員의 세 차례의 勸告는 「越王句踐世家」에도 보이는데, 여기에도 勸告 內容의 數量에 對한 配應는 없는 것 같다. 그의 最初의 勸告는 兩斷되어 있고, 各段의 中間에 越側의 다른 事件이 挿入되어 있기도 하다. 다만 伍員의 세 번의 勸告는 이렇게 세 傳記를 通해서 보듯이 果然 「史記」內部에서는 矛盾을 犯하지는 않았다.⁽⁵⁵⁾

以上の 說明은 田中氏의 見解를 引用한 것이다.

12. 自 殺

이윽고, 子胥는 吳王의 미움을 받고 있던 中 齊나라에 使節로 갈 때 아들을 齊로 逃避시킨 것이 禍根이 되어 奸臣 嚭의 讒訴를 들은 吳王의 憤怒를 사서 自殺을 勸告당한다. 嚭의 讒言 밑에 다음과 같이 子胥가 죽을 때 일을 記錄했다.

……吳王이 가로되; “그대의 말이 아니더라도 나도 또한 그를 疑心하였오”하고 이에 使者를 시켜서 伍子胥에게 屬鑣한 칼을 주며 이르기를; “그대는 이것으로 죽으라”하였다. 伍子胥가 하늘을 우러러 歎息하기를; “슬프다! 讒臣 嚭가 亂을 꾸미는데 王은 이제 도리어 나를 죽이누나! 내가 너의 아버지를 霸者로 만들었다. 너가 서지 않았을 때 諸王公子가 자리를 다투었다. 내가 죽음으로써 무릅쓰고 先王에게 버티었더라면, 아마 王位에 오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네가 即位한 뒤에 吳나라를 갈라서 나에게 주려고 하였으나 나는 정말 바라지도 않았다. 그러나 지금 너는 諛臣의 말을 듣고서 長者를 죽이려누나!” 하고서 이에 그 舍人에게 告하기를; “반드시 나의 무덤 위에 가래나무를 심어서 棺을 만들게 하고 내 눈을 떼서 吳 東門 위에 걸게 하여, 越寇들이 물려 들어 와 吳를 滅하는 것을 보게 하라.”하고 이에 스스로 목을 찢어 죽었다. 吳王이 듣고 크게 怒하여, 이에 子胥의 屍體를 가져다 말가죽 자루(鸛夷革)에 담아 江 가운데로 띄웠다. 吳나라 사람 들은 그를 可憐하게

(55) 田中, 上掲論文, pp. 19—20. 에서 引用

여겨 江上에 祠堂을 세웠다. 이로 因하여 이름을 胥山이라 하였다.⁽⁵⁶⁾

이 一段은 「左傳」 哀公十一年條의 記錄 가운데 ;

……임금이 그것을 듣고서 屬讎를 보내어 죽게 하였다. 죽을 때 이르기를; “나의 무덤에 櫟나무를 심으라. 櫟나무는 棺材로 쓸 수 있다. 吳나라는 3年 內에 弱해지기 始作할 것이다. 차면 반드시 기울게 되는 것이 하늘이 定한 道理이다.”⁽⁵⁷⁾

고 말한 部分에서 取하기는 했으나, 任意로 造作하고, 敷衍한 部分이 많은 것 같다.⁽⁵⁸⁾

그런데 이와 같이 伍子胥가 죽을 때 光景을 描寫하는 데 「史記」의 著者の 相當한 任意의 造作과 敷衍이 加味되었다는 것을 前提로 하고 볼 때, 위에 引用한 「史記」 伍子胥列傳 原文 가운데, 太宰 嚭의 讒言을 듣고서 吳王이 곧 이를 承認하면서, —“그대의 말이 아니더라도 나도 또한 그를 疑心하였오(微子之言, 吾亦疑之)”하고, 이어 使者를 시켜서 伍子胥에게 屬讎란 칼을 주며 이르기를; “그대는 이것으로 죽으라(子以此死)”—라고 한 部分은 事件 叙述이 너무 急速히 進行되어 그 情景이 그대로 首肯되지 않는다. 아무리 伍子胥가 王의 말을 數次 反對하고, 太宰의 讒言이 巧妙한 것이다 하더라도 一言之下에 重臣에게 칼을 보내 죽음을 强要한다는 것은 納得하기 힘든 대목이다. 「越王句踐世家」에 보면 ;

……드디어 齊를 伐해서 艾陵에서 敗北시키고, 齊의 高昭子와 國惠子를 사로 잡았다. 돌아와서 子胥를 나무랐다. 子胥는 말하기를; “王은 즐거워하지 마소서”하니 王이 怒했다. 子胥가 自殺하려 하매 王이 中止시켰다. 越大夫 種이 이르기를 “臣은 吳王을 보니 政治에 驕慢함이 있습니다. 請컨대 試驗삼아 곡식을 구어 주어서 그 反應을 占쳐 보소서”하였다. 구어 줄 것을 請하니, 吳王은 받으려 하나, 子胥가 받지 말도록 諫했다. 王이 드디어 받으며 越이 이에 스스로 즐거워 하였다. 子胥는 말하기를; “王이 諫함을 듣지 않는구나. 以後 3年 안에 吳는 廢墟가 될 것이다”. 太宰 嚭가 그것을 듣고 이에 여러 번 子胥와 더불어 越나라 問題로 다투었다. 이 때문에 子胥를 讒訴하여 아뢰기를; “伍員은 모습은 忠誠스러운 듯 하나, 實은 毒한 人間입니다. 自己의 父兄도 돌보지 않는데, 어찌 임금을 돌볼수 있겠습니까? 임금께서 앞서 齊를 伐하려 할 때 員이 애써 反對했으나, 어느 덧 戰功이 나타나자 어 때문에 도리어 임금님에게 怨恨을 품고 있습니다. 임금님께서 伍員을 警戒하지 않으

(56) pp. 18—9

(57) 卷58 p. 26a

(58) 「考證」 卷66 p. 18. “伍子胥諫以下, 本哀十一年左傳. 太宰嚭之讒, 子胥之歎, 史公以意敷衍.” 이에 대하여 王叔岷教授는 “史公當別有所本, 非以意衍也. 考證往往臆斷如此!” (「史記駢證」 卷66 p. 14.)라고 하였으나, 그 所本을 지금 자세히 알 수 없는 限은 亦是 造作이나, 敷衍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을 듯 하다.

시면, 員은 반드시 亂을 일으킬 것입니다”하며 達同과 더불어 함께 謀議하여 임금께 讒訴하였다. 王은 처음에 듣지 않았다. 이에 子胥를 齊나라에 使臣을 보내었다. 그 아들을 鮑氏에게 맡긴 것을 듣고서, 왕이 이에 크게 怒하여 이르기를; “伍員이 果然 寡人을 속이는구나!”하고 任務를 마치고 돌아 오자, 사람을 시켜 子胥에게 屬劍을 주어 自殺케 하였다. 子胥가 크게 웃으며 말하기를; “내 너의 아버를 霸者로 만들고, 내 또한 너를 임금으로 세웠는데, 너가 처음에는 吳國을 갈라 半을 나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내가 받지 않았다. 지금 너가 도리어 讒訴 때문에 나를 죽이는구나! 슬프도다! 슬프도다! 너 한 사람은 정말 獨立할 수 없을 것이다.”하고 使者에게 이르기를; “반드시 나의 눈을 빼서 吳나라 東門에 걸어 越兵들이 들어 오는 것을 보게 하라”고 하였다.⁽⁵⁹⁾

이 記錄을 보면 吳王이 子胥를 죽이기까지는 몇 번의 進諫에 失敗하고 노여움을 사서 自殺까지 決心했으나, 정작 王이 그것을 듣고 죽지 못하게 말렸는데, 이 吳王과 伍子胥 사이의 釋然치 못한 關係를 探知한 敵國 越의 離間陰謀와, 太宰 嚭의 讒言이 繼續 되었으나, 王은 그대로 듣지 않고, 子胥를 齊나라에 使臣으로 보내기까지 하였으나, 子胥가 齊로 갈 때 그 아들을 帶同하고 가서 齊로 逃避시킨 것이 結局 決定的인 疑心을 받게 되어 드디어 죽음을 強要당하게 된다. 이 「越王句踐世家」에 그린 伍子胥의 末路의 表現이 정작 伍子胥列傳의 斷刀直入의인 表現보다는 훨씬 더 曲折이 많아 寫實的이고 首肯이 더 간다.

그런데 子胥가 죽을 때 그 舍人에게 “반드시 나의 墓 위에 가래나무를 심어서 棺을 만들게 하고, 내 눈을 빼서 吳 東門 위에 걸게 하여 越寇들이 들어 와 吳를 滅하는 것을 보게 하라”는 呪呪에 찬 말을 남겼다는 것과 죽은 뒤에 吳王이 이 말을 듣고 大怒하여 이에 子胥의 屍體를 取해서 말가죽에 싸서 江 속에 던졌다는 이야기는 앞서 引用한 「左傳」 哀公 十一年條의 이야기에는 오직 自己가 죽은 뒤에 “나의 무덤에 檣나무를 심으라. 檣나무는 棺材로 쓸 수 있다”고만 되어 있는데, 「國語」 吳語에 보면;

“……이것은 吳의 運命을 促進시키는 것입니다. 員은 미친 病을 핑계하고 王에게서 親히 越에 붙잡혀 가는 것을 견딜 수는 없습니다. 員은 請컨대 먼저 죽고자 합니다.”하고 드디어 自殺하였다. 죽을 때 이르기를; “나의 눈을 東門에 달아서 越이 들어 와 吳나라가 亡하는 것을 보게 하라”하였다. 王이 怒하여 말하기를; “孤가 大夫로 하여금 보이게 할 수 없다”하고 이에 子胥의 屍體를 가져다 말 가죽 주머니(鸛鵲)에 싸서 江에 버리게 했다.⁽⁶⁰⁾

고 되어 있다. 結局 越王句踐世家의 伍子胥 死時光景이나 本傳의 伍子胥死時光景描寫는 「左傳」보

(59) 越王句踐世家第十一 pp. 9—11

(60) 「國語」 卷19 p. 5a

다는 「國語」에 더 깊이 依存하였음이 드러난다.

그 다음 子胥가 죽은 뒤 “吳나라 사람들이 그를 可憐히 여겨 江上에 祠堂을 세우고, ‘胥山’이라고 이름하였다”는 것은 그의 崎嶇한 運命에 對한 同情에 起因하여 있을 법한 이야기로 보인다.

13. 死 後

子胥가 죽은지 11年 뒤에 吳는 드디어 越에게 亡한다. 吳가 滅亡할 때의 事實을 本傳에는 ;

……越王 句踐이 드디어 吳를 滅하고 夫差를 죽였다. 그리고 太宰 嚭는 그 임금에게 忠誠스럽게 못하고, 바깥으로 重賂를 받아 그와 相從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죽었다.⁽⁶¹⁾

고 하였는데, 吳王과 太宰 嚭를 죽인 이야기는 兩 記錄과는 差異가 많다. 「左傳」 哀公 22年條의 記錄을 보면 ;

冬 十一月 丁卯에 越이 吳를 滅하다. 吳王을 甬東에 居하도록 請하니 사양하면서 이르기를 ; “孤는 늙었으니, 어찌 능히 임금님을 받들 수 있겠나이까?”하고 이에 목매어 죽었다. 越人들이 이에 돌아갔다.⁽⁶²⁾

同 24年條에는

潤월에 公이 越로 가서 太子 適郢의 歡心을 샀다. 公에게 장가도 들게하고, 땅도 많이 주려하였다. 公山有山이 이 말을 季孫에게 전하니, 季孫이 놀라서 太宰 嚭를 통해서 뇌물을 바치게 했다. 이에 그만 두었다.⁽⁶³⁾

라고 되어 있는데, 이 記錄에 依하면 위에 引用한 本傳의 記錄과는 달리 吳王은 自殺한 것이며 太宰 嚭는 越王에게 誅殺된 것이 아니라 吳가 亡한 뒤에도 越에서 相當한 影響力을 미치면서 살고 있었음이 들어난다. 「國語」 吳語에는 ;

夫差가 죽을 때 사람으로 하여금 子胥가 告하게 하되 “죽은 이가 모른다면 그만이나, 만약 안다면, 내 무슨 面目으로 伍員을 보겠는가?”하며 드디어 自殺하였다.⁽⁶⁴⁾

고 되었는데, 같은 「史記」의 吳太伯世家에 ; —吳王이 이르되 “孤는 늙어 君牙를 섬길 수 없

(61) p. 20

(62) 「左傳」 卷60 p. 17a-b

(63) 「左傳」 卷60 p. 19

(64) 卷19 p. 14a

읍니다. 내 子胥의 말을 듣지 않다가 스스로 이렇게 된 것에 후회스럽다” 하고 드디어 스스로 목을 찢어 죽었다⁽⁶⁵⁾——고 한 말이나, 越王句踐世家에;——吳王이 거절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늙었으니 君王을 섬길 수 없습니다”하고 드디어自殺하였다. 이에 그 얼굴을 가리고 말하기를; “내 子胥를 볼 날이 없구나”⁽⁶⁶⁾——고 말한 이야기는 각각 위에 引用한 「左傳」과 「國語」의 內容을 取하여 조금씩 變形시킨 것인데, 다 吳王이自殺한 것으로 描寫되어 있다.

이렇게 本傳에서 「左傳」, 「國語」 심지어 「史記」 他世家에서조차自殺로 描寫한 吳王의 죽음을 越王이 處刑한 것으로, 「左傳」에는 吳가 滅한 2年 뒤에도 越에 倖存한 것으로 記錄된 太宰 嚭를 越王이 不忠 不義한 者로 處斷한 것으로 바꾼 것은 「史記」의 著者가 伍子胥의 運命을 同情하여 伍子胥의 豫言과 咀呪 그대로 이윅고 吳는 必是 亡하고, 그의 忠諫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吳王과 請도 끝내 無慘히 沒殺되는 것으로 造作해 놓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4. 附：白公勝事略

以上으로 伍子胥 本人에 關聯된 伍子胥 本傳의 敘述은 一段落되었다. 그 末尾에 子胥와 함께 吳로 亡命했다가 楚 惠王의 要請으로 楚로 되돌아 간 故 楚太子 建의 아들 白公 勝의 記錄이 附傳되어 있다.

勝이 楚로 돌아간 뒤, 鄭나라가 自己 아버지 太子 建을 죽인 것을 恨스럽게 생각하고 楚 令尹 子西의 힘을 빌어 그 征伐을 試圖하고자 하였으나, 子胥가 위에 오히려 鄭과 同盟한 것에 憤慨, 石乞와 함께 令尹 子西를 朝廷에서 襲殺하고, 내친 김에 楚 惠王을 죽이려하다가 失敗, 山中으로 도망하다가自殺한다. 石乞은 잡혀서 끝내 白公勝의 屍體있는 곳을 말하지 않다가 被殺된다. 이 이야기는 「左傳」 哀公16年條에 매우 昭詳히 記錄된 것을 採錄한 것이다.

이 白公 石乞의 亂은 伍子胥가 죽은 뒤 楚에서 일어난 일로 伍子胥와는 別 關聯이 없기 때문에 事實 이 伍子胥傳 밑에 附載하기 보다는 楚世家 아래 附載하는 것이 더욱 妥當치 않을까하는 異論도 있으나,⁽⁶⁷⁾ 白公은 아버지를 위하여 원수를 갚고, 石乞은 主人을 위하여 忠誠을 다한 점이 伍子胥와 비슷하기 때문에 오히려 子胥傳 밑에 白公故事를 附載한 것을 當然한 것으로 본 見解도 있다.⁽⁶⁸⁾

15. 贊

위와 같이 伍子胥列傳을 記述한 「史記」의 著者 自身の 伍子胥에 對한 主觀的인 見解를 나타낸 贊의 全文은 다음과 같다.

(65) p. 44

(66) p. 14

(67) 「史記札記」 p. 245 接叙白公·石乞事，當入楚世家。附之伍子胥傳後均不爲不類。

(68) 「考證」(卷66 p. 23) 引用一凌約言曰：“白公爲父執仇，石乞爲主盡忠，其於子胥，皆類例也。太史公附此一段，正以例見子胥之長耳。”

怨毒이 사람에게 미치는 바 심하도다!

王子도 오히려 臣下에게 행할 수 없거늘 하물며 同列에 있어서 일까보냐? 앞서 가령 伍子胥가 奢를 따라 함께 죽었더라면 螻蟻와 다를 것이 무엇이겠는가? 小義를 버리고, 大恥를 씻어 이름이 後世에 드러워 졌도다. 슬프도다! 子胥가 바야흐로 江上에서 군색하고, 길에서 乞食할 때라도, 뜻은 어찌 일찍 잠간이라도 郢을 잊었겠는가? 그런고로 숨어서 참으며 功名을 이루었다. 烈丈夫가 아니면 누가 能히 이것을 이루었겠는가? 白公도 만약 스스로 임금이 될 욕심이 없었더라면, 그 功謀 또한 말할 수 없을 것인저! (69)

이 贊은 本列傳의 作者 司馬遷의 伍子胥에 對한 同情과 理解를 잘 나타낸 것이다. 論者들은 司馬遷이 李陵의 事件에 連坐되어 宮刑을 받고, 恥辱을 무릅쓰고 산 것은 오직 世業인 「史記」를 完成하여 不朽의 業績을 後世에 남기려는 意志의 所由인데, 이 贊에서 伍子胥가 죽음을 넘어 入仕하여 楚를 伐하고, 卽에서 雪怨한 것을 烈丈夫의 所行으로 높이 評한 것은 그러한 同情과 理解의 立證으로 보고 있다. (70)

또 論者들은 이 贊에서 明示한 바와 같이 本 伍子胥傳 全體 속에 흐르고 있는 테마는 ‘怨毒’——怨恨——으로 보기도 한다. (71) 이에 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이미 자세히 論하였고, 大概 見解가 一致하므로 여기서 이 以上の 說明은 避하기로 한다.

III. 結 語

以上 伍子胥列傳의 原文을 놓고, 그 資料로 삼은 「左傳」, 「國語」等書 및 「史記」중에 關聯된 楚世家, 吳太伯世家, 越王句踐世家의 記錄들과 對照하며, 그 記述 內容의 差異를 巧求해 보았다. 本論에서 開陳한 內容을 여기서 要約하면, 本傳의 記錄은 大概 「左傳」, 「國語」, 「呂氏春秋」등을 資料로 삼은 것은 事實이나, 이러한 既往의 記錄과 對照할 때,

1. 內容을 縮寫, 혹은 近似하게 移記한 것,
2. 敷衍,乃至 若干 變造한 것,
3. 典據를 찾을 수 없는 創作으로 보이는 것 등으로 나눌 수 있겠다.

아래 그 例를 다시 引用해 본다.

(1) 縮寫, 혹은 近似하게 移記해 둔 例: II.2. 吳奢(伍子胥의 父)의 이야기는 「左傳」 昭公 19年, 20年條와 「呂氏春秋」 慎行篇에서 取한 것이며, II.8. 伐楚戰役에 楚昭王이 出奔하여 雲夢, 郢, 隨 等地로 轉轉한 插話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左傳」 定公 4年條의 記錄을 大體로

(69) p. 23

(70) 「考證」+ 史記總論 p. 23 참조

(71) 田中 前掲書(春秋戰國圖) pp. 27—8, Watson 「司馬遷」(日譯本) p. 234 등 참조

縮錄한 것이며, 같은 내용이 楚世家에도 나오나, 그 보다 더 簡略하다. 이것은 아마 本傳과는 이 記事가 直接的인 關聯이 적기 때문일 것이다. Ⅱ.9. 吳楚相爭은 定公 4, 5, 6年條에서 亦是 採錄한 것이며, Ⅱ.14. 附傳된 白公勝事略 亦是「左傳」哀公 16年條에서 採錄하였다.

(2) 敷衍, 乃至 變造한 例: Ⅱ.3. 二子를 謀殺코자 할 때 記錄은 分明히「左傳」昭公 24年條의 記錄에서 取한 것이나, 「左傳」과는 달리 對話를 伍子胥 兄弟之間과 楚王과 吳奢사이에 모두 만들어 넣어 兄弟사이의 性格의 差異 같은 것을 더욱 鮮明하게 露出시켰다. Ⅱ.4. 亡命時「左傳」에는 “吳로 갔다(如吳)”고만 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宋, 鄭, 晉 等地로 轉轉하다가 吳로 간 것으로 되어 있고, Ⅱ.11. 子胥가 吳王에게 越을 征伐할 것을「左傳」, 「國語」의 記錄에는 2次 밖에 諫하지 않았으나, 여기서는 3次로 늘었고, Ⅱ.12. 自殺하기 까지 太宰 嚭의 讒言과 伍子胥의 恨歎은「左傳」哀公 11年條와 吳國에서 딴 것 같으나, 아무래도 敷衍이 많은 것 같다.

(3) 典據를 찾을 수 없어 創作으로 보이는 例: Ⅱ.8. 報讐事件 中 “楚 平王의 무덤을 파내어, 그 시체를 꺼내어 300번이나 친 뒤에 그만 두었다.”고 한 表現이나, 그 이야기를 듣고, 申包胥가 山中에서 子胥를 나무래고, 子胥가 이에 答한 말은 모두 司馬遷이 처음으로 創作해 낸 것 같이 보인다. 또 死後에(Ⅱ.13) 越王이 太宰 嚭를 “不忠於其君”한 罪로 죽였다는 記錄도 亦是 史實과는 다른 創作에 속한다.

위와 같이 本 伍子胥列傳의 內容을 그 典據의 依存度에 따라서 大概 위와 같이 나누어 보았는데, 여기서 推出해 낼 수 있는 結論은 곧 記述內容이 伍子胥 本人과 直接的인 關聯이 稀薄할 수록 叙述은 이미 앞서 있었던 典籍을 抄寫하거나 近似하게 移記해 둔 面이 強한데 反하여, 內容이 伍子胥 本人의 運命과 關聯이 깊고, 深刻해 질수록 敷衍, 潤色, 改造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點이다.

이 點은 以後에 伍子胥가 登場하는 作品들에(「吳越春秋」나, 「伍子胥變文」 등) 내려갈 수록 甚해지지 않는가 생각된다.

이로써 本 小攷의 論及은 대강 끝내려 한다. 本傳 內容과 더불어 叙述形式, 體裁에 관한 言及을 여기서 다 하지 못한 點을 未備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本攷와 關聯하여 다음 두 가지 課題를 繼續해서 考慮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伍子胥說話의 文學的 展開——위에 든 「吳越春秋」, 「伍子胥變文」 및 元曲 가운데 「伍員吹簫」等 素題가 같은 一聯의 作品이 內容과 形式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가 하는 점과

둘째는 本傳의 題에 따른 怨恨과 復讐가 되겠는데, 이런 類形의 傳記는 廿五史와 같은 正史의 列傳속에서도 없는 것은 아니나, 이러한 正史類에서 보다는 本論 緒說에서도 言及한 別史類나, 傳記類 따위에서 비슷한 類形의 作品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이 모든 類의 歷史的 傳記를 綜合하여 ‘史傳文學’의 體系를 定立하는 일이다. (1972. 10. 12)

A Study on the Biography of Wu Tzu-hsü of the Shih chi

by Jang-wu Lee

There are many Chinese literary works in which we find Wu Tzu-hsü 伍子胥(?~485 B.C.) a hero. For example in the *Wu Yüeh ch'un-ch'u* 吳越春秋(*Spring and Autumn Annals of Wu and Yüeh*) by Chao Yeh 趙曄(Cal. 2C. A.D.) of the Later Han, the main story is related to Wu Tzu-hsü, the *Wu Tzu-hsü Pien-wen* 伍子胥變文 of the *Tun-huang Pien-wen* 敦煌變文 and *Wu Yüan Ch'ui-hsiao* 伍員吹簫(*Wu Yüan Plays on a Bamboo Clarinet*) in the *Yüan* 元 *Drama* etc., which are some of the most famous works about the hero. Among them *Wu Tzu-hsü lieh-chuan* 伍子胥列傳(*Biography of Wu Tzu-hsü*) of the *Shih chi* 史記(*Records of the Historian* by Ssu-ma Ch'ien, 145~86 B.C.) seems to have been the first attempt to write a full-length biography of the hero. Ssu-ma Ch'ien, the author of the *Shih chi*, was a man of the Emperor Wu of the Former Han. *Shih chi*, according to the commentators or the scholars, in writing of *Shih chi*, the author referred to *Tso chuan* 左傳 (*Tso Commentary*), *Kuo yü* 國語 (*Narratives from the States*), *Lu-shih ch'un-ch'iu* 呂氏春秋(*Spring and Autumn Annals of Lu Pu-wei*), and *Hai-nan-tzu* 淮南子 etc.

Wu Tzu-hsü lived in the later Ch'un-ch'u 春秋 period, and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in the Southern Countries of Ch'u 楚, Wu 吳, and Yüeh 越. His adverse destiny has been frequently talked about.

Wu Tzu-hsü's father, an official of Ch'u, fell victim to the slander of his contemporary court rivals and was seized to held as a hostage. Word was sent to his two sons Tzu-hsü and Shang 尚, that if they would come and surrender themselves, they might save their father. Shang, for the sake of filial piety, went, although he knew he would be put to death. But Tzu-hsü fled to Wu where he eventually won favor, led an army against Ch'u and avenged his father and brother.⁽¹⁾ But many years later he died in a trap. The tragic tale of Wu Tzu-hsü aroused people's sympathy so greatly that it

(1) *Cit.*, Ssu-ma Ch'ien; *Grand Historian of China* by Burton Watson(Columbia Univ. Press, 1963) p.190

created a literary topic.

The earliest record among existing narrations about Wu Tzu-hsü is that of the 20th year of Duke Chao 昭公 in *Tso Chuan* or that of *Wu yü* 吳語 (*Narratives from Wu*) in *Kuo yü* were written in chronical form, but the *Biography of Wu Tzu-hsü* of the *Shih chi* was written in biographical form. Once left as mere fragments of records on Wu Tzu-hsü the *Tso Chuan* or the *Kuo yü* became important materials in forming the *Biography of Shih chi* which tells the importance of his historical figure. From a literary point of view, the following can be pointed out. First, with time fleeing, the story about Wu Tzu-hsü became enough for Ssu-ma Ch'ien to recreate it as an independent biography. Second, as a biographer Ssu-ma Chien had strong confidence that Wu Tzu-hsü would make a successful character in a literary work.

The main contents of this thesis is to show a comparison of the original Biography of Wu Tzu-hsü in *Shih chi* with such a literary datum prior to *Shih chi* as *Tso chuan*, *Kuo yü*, etc. together with some records on Wu Tzu-hsü written in *Ch'u shih-chia* 楚世家 (*the Hereditary House of Ch'u*) (*Shih chi* 40), *Wu Tai-po shih-chia* 吳太伯世家 (*the Hereditary House of Wu*) (*Shih chi* 31) and *Yüeh-wang Chu-chien shih-chia* 越王句踐世家 (*the Hereditary House of Yüeh*) in *Shih chi*.

Summerizing the main idea, it is true that the original records of the Biography of Wu Tzu-hsü are mostly collected from the *Tso chuan*, *Kuo yü*, *Lu-shih ch' un-ch' iu* etc. But comparing the original records of the Biography with the above mentioned materials, the following are differences between them;

The original records of the Biography are;

- A) summerized or transcribed from the above materials.
- B) dilated or rearranged from the above materials.
- C) thoroughly created by Ssu-ma Ch'ien without any basis on the above materials.

Examples;

A) When Wu Tzu-hsü's father, Wu She 吳奢, became a grand tutor of Chien 建, the Crown Prince of King P'ing 平王, Fe Wu-chi 費無忌, assistant tutor entrapped Wu She and the prince after presenting the lady of Ch'in 秦, who was engaged to Chien, to King P'ing. This story is transcribed from the records of the 19th and 20th year of Duke Chao 昭公 in *Tso chuan* and from the records of *Shen-hsing-pien* 慎行篇 (*the Chapter of the Discreet Behavior*) in *Lu-shih ch' un-ch' iu*.

When Wu Tzu-hsü invaded into Ch'u commanding military troops of Wu the king of Ch'u, King Chao, fled to Yün-meng 雲夢, Yun 鄖, Sui 隨. This story is summarized from the records of the 4th year of Duke Ting 定公 in *Tso chuan* which is more simplified than that of *Ch'u shih-chia*. Afterwards the kingdom of Wu and Ch'u continued to fight against each other for a few years, which is also transcribed from the descriptions of the 4th, 5th and 6th year of Duke Ting in *Tso chuan*. To the end of the Biography of Wu Tzu-hsü is added a supplementary record on Po Kung 白公 Sheng 勝, the son of the late Crown Prince of Ch'u, who sought political asylum with Wu Tzu-hsü to Wu and returned afterwards to Ch'u at the request of King Huei 惠王 of Ch'u. This story is also transcribed from the records in the 16th year of Duke Ai 哀公 in *Tso chuan*.

The records quoted in the above take relatively little part of the life of Wu Tzu-hsü in the Biography.

B) Fei Wu-chi imprisoned Wu She and tried to get rid of his whole family by keeping his two sons, Shang and Yün, in the hostage of his father. But Yün noticed his intention before hand and made a successful escape from the danger, though his elder brother, Wu Shang, fell a victim to his trick, according to the description in the 20th year chapter of *Tso chuan*. But in *Shih chi*, a more detailed and cordial description is given, than in the *Tso chuan*. The same is true in the form of dialogue. For example in *Tso chuan* the call of King of Ch'u is described in the form of monologue by Wu Shang; but it is given through conversation between the two brothers, Wu Shang and Wu Yün, to characterize their respective personalities.

When Wu Tzu-hsü escaped from Ch'u for political asylum to Wu, it is described in *Tso chuan* simply that 'He went to Wu', but in the Biography of Wu Tzu-hsü he went to Wu after wandering around Sung宋, Cheng鄭, Chin晉 and so forth.

Once Kou-chien 句踐, the king of Yüeh, asked his neighboring kingdom of Wu for a temporary reconciliation in spite of great humiliation on his part, to bide for time to strengthen its national power, when the two kingdoms were in a state of hostility. The king of Wu, Fu-cha 夫差, did not notice the intention of his counter part in Yüeh to accept the proposal, but Wu Tzu-hsü became aware of his trap and tried in vain to dissuade Fu-cha from accepting it. According to *Tso chuan* and *Kuo yü* his remonstrance was given twice, in the 1st and 11th year of Duke Ai哀公; but in the Biography

three times. In regards to the frequency of the remonstrance professor Tanaka Kenji 田中謙二 gives a more detailed description in *Shikini Okeru Ningen Byosha* 史記における人間描寫 (*Description of Human Beings in the Shih chi*).⁽²⁾ According to him, Ssu-ma Ch'ien took note of the fact that the dissuasion by Wu Tzu-hsü was repeated twice in vain and he added one more remonstrance and rejection to emphasize the tragic catastrophe of Wu Yün who committed suicide in the feeling of abandonment by the king of Wu.

C) When Wu Tzu-hsü invaded Ying 郢, the capital of Ch'u, the King Chao of Ch'u escaped and Wu Tzu-hsü insulted the tomb of King Ping. The original record of the event is as follows:

With the military troops of Wu invaded into Ying We Tzu-hsü tried vainly to make a prisoner of King Chao, which made Wu Tzu-hsü so angry that he took the corpse of King Ping out of the tomb and beat him as much as three hundred times.⁽³⁾

Although no description could be found of the fact in *Tso chuan*, some comments were written in the other books; 'Wu Yün hit the tomb' in *Ku-liang chuan* 穀梁傳 (*Ku-liang Commentary*); 'Wu Tzu-hsü himself sped to the palace and beat the tomb for three hundred times' at *Shou-shih p'ien* 首時篇 in *Lu-shih ch'un-ch'iu*. Ssu-ma Ch'ien seemed to have described it as quoted above for the purpose of vividly expressing strong hatred and the revengeful mind of Wu Tzu-hsü.

The kingdom of Wu was finally overthrown by Yüeh eleven years after Wu Tzu-hsü's death. According to the original Biography, the king of Yüeh (Kou-chien) killed the king of Wu (Fu-cha) and the grand-administrator Hsi 嚭 immediately after he conquered Wu. But the king of Wu killed himself and the grand-administrator (Hsi) was not killed by the king of Yüeh but saved his life thereby gaining some amount of influence over Yüeh, according to the Annals in the year of 22nd and 24th of Duke Ai. As shown in the above, Ssu-ma Ch'ien made a self-styled change to the annals in sympathy of Wu Tzu-hsü's tragic fate which emphasized the fact that Wu was to be destroyed and that the king of Wu and Hsi who hadn't followed his loyal remonstrance were destined to meet with a tragic end.

(2) *Shiki* 史記 (*Shuju-senkoku-hen* 春秋戰國篇) translated by Tanaka Kenji and Ikkaï Tomoyoshi 一海知義 *Chugoku-kotensen* 中國古典漢 series (Rev. ed. Tokyo, 1966) Appendix pp. 1~21.

(3) 吳王入郢，子胥求昭王。既不得，乃掘平王墓，出其尸，鞭之三百，然後已。—*Shiki kaichu kosho* 史記會注考證 by Takikawa Kametaro 瀧川龜太郎 (Taiwan Reprint) Vol 7. p. 11.

In the Biography of Tzu-hsü, the tales having some connection with the fate of Wu Tzu-hsü himself are recopied or similarly recorded from the annals existing at that time, but those having a greater connection and interest are invented or even recreated from the annals. Therefore by the Biography of Wu Tzu-hsü the tales of Wu Tzu hsi became richer in fabricated and dilated content.

As pointed out at the beginning of the thesis, this may back up the possibility of frequent misinformation, dilation and re-creation of the fales on Wu Tzu-hsü. At the same to make the Biography a prominent one, Ssu-ma Ch'ien added the best of his creative literary ability to the sundry materials handed down by letters and words of mouth.

This trend seems to have become more and more pronounced in the late literary works where Wu Tzu-hsü appears, such as in the *Wu Yüeh ch'un-ch'iu* and in the *Wu Tzu-hsü Pien-wen* etc.